

# 광주경선 ‘숙의배심원제’ 공정성 확보가 관건

## 국민의당 공천심사 시작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텃밭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이 6일 광주지역 총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검증에 들어갔다.

공개면접과 숙의배심원단제 등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지역구별 최대 5대 1, 평균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선 잡음이 우려되고 있고, 신생 정당이 어떻게 잡음 없이 경선 관리를 할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4·13 총선 광주지역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공개 면접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8개 지역구 현역의원, 예비후보 등 28명이 1인당 10분씩 패널 질문 2개와 공직후보 자적심사 위원회 질의에 답변했다.

당은 이날 면접심사 결과와 서류심사 등을 통해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는 경선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른 이변주춤 일부 후보들의 ‘컷오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관문은 광주에 적용하기로 한 숙의배심원단제 경선이다. 숙의투표제는 후보 간 토론 또는 연설을 들은 뒤 선거인단이 토론 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배심원단 투표를 100% 적용할지, 여론조

100명이나 500명이나 규모 축각

지역구별 높은 경쟁률 잡음 우려

이르면 주말쯤 컷오프 이뤄질 듯

사를 혼용할지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선거구를 중심으로 여론조사 혼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선 당락을 좌우할 배심원단 구성과 규모도 공정성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 엄격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능단체 대표, 시민사회 인사, 명망가 등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 개인이나 당내 특정 계파에 우호적인 ‘자기 사람 심기’ 경쟁이 펼쳐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는 이른바 ‘안철수계’, ‘천정배계’ 사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치열해 배심원단 구성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천정배 공동대표가 시민사회 참여 등 숙의배심원단을 제안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비(非)천정배계 후보들의 우려가 크다.

배심원단 규모도 갈등의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시행세칙에는 100명 규모로 숙의배심원단을 구성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숫자가 너무 적어 소수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알려진 대로 배심원단 규모가 100~200명 정도라면 ‘내 사람’ 50~60명만 심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500~6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구별로 배심원단을 구성할지, 광주지역 1개 배심원단을 구성해 8개 선거구를 돌며 경선을 할지도 관심이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시간 차이를 두고 8개 지역구를 순회하며 경선을 할 경우 배심원 노출에 따른 배심원단 대상 로비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선거구별로 후보군의 숫자에 따라 다양한 경선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구별로 후보군이 3명 이내인 경우 여론조사결과와 면접 점수, 숙의배심원단투표 합산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인 이상으로 후보가 많은 경우에는 먼저 여론조사를 통해 1위와 2위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1위를 단독 후보로 추대하거나, 후보 간의 여론조사 편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면접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 “계파 고려 않고 사심없이 개혁공천 하겠다”

천정배 “국민의당 광주서 한석만 잃어도 패배...8대0이 목표”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6일 ‘계파를 고려하지 않고 사심 없는 개혁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천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 총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일어난 이른바 안철수계와 천정배계 사이 물밑 신경전과 관련, “(내가) 다른 건 무능할지 몰라도 공정성에 관해서는 강박증이 있

다”고 말했다.

그는 계파공천 우려와 관련해선 “일부 후보 진영에서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 없다”며 “경선에서는 엄정중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대표 측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며 “심을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가자고 논

의도 했지만 ‘없다’는 의사를 서로 밝혔고 김한길 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말을 하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 목표에 대해선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한 석만 잃어도 패배. 8대0이 목표”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당 안팎의 수도권 출마 요구에 대해선 “호남에 있으면 기득권이고 (서울로)가면 헌신이나”며 “지난 보궐선거에서 쉽게 당선됐느냐. (내가) 기득권을 챙긴 게 있느냐. (광주에서) 호남정치를 살리기 위한 헌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더민주 지역구 면접 마무리...주중 2차 컷오프 발표

중진 50%·초재선 30% 정밀심사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4·13 총선의 지역구 공천 신청 후보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마무리했다. 더민주의 주중 현역의원 2차 공천 원천배제 발표를 비롯해 지역구 공천 심사를 끝낸 뒤 지역별 경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민주에 따르면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대부분 끝낸 데 이어 5일부터 그동안 취합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종합심사에 들어갔다. 오는 8일 경선지역을 시작으로 심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늦어도 10~11일이면 심사결과 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관위는 비현역 공천신청자와 달리 현역

의원의 경우 3년 이상 중진의 50%, 초재선 30%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경쟁력심사와 윤리심사를 별도로 진행해 일정 기준 미달시 가부투표를 통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10명을 공천에서 배제한 데 이어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2차 물갈이 공천인 셈이다.

현재까지 하위 20% 배제자 10명, 불출마자 5명을 포함한 모두 15명의 물갈이가 이뤄진 상태다.

당내에서는 경쟁력심사와 윤리심사 대상이 40여명에 달하고,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관위는 복수후보 지역에 대해 11일부터 경선을 실시해 20일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관위는 주중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종합심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더민주가 최근 4·13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모를 실시한 결과 모두 228명이 신청했다. 더민주의 내주까지 지역구 후보자 공천 심사가 마무리되면 비례대표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현역 의원 중에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전순옥 의원이 다시 비례대표 도전장을 냈다. 호남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곤 전략공천위원장도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을 맡은 인사 중에는 김성수 대변인과 이재경 메시지본부장이 비례대표 출마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영입인사도 대거 도전장을 냈다. 이철희 당 전략기획부장, 이수혁 전 6차회담 수석대표 등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 국민의당 광주지역 공천 면접장 가보니



국민의당이 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역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면접 심사를 했다. 동남갑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김명진, 김영집, 서정성, 장병완, 정진욱 예비후보(왼쪽부터)들이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호남정치 복원·정권교체 위해 출마” 지지후보 단상 서자 지지자들 환호

“당에서 현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로 출마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6일 오전 10시30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에서 열린 ‘국민의당 공개면접 심사’ 현장엔 긴장감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이번 공개면접은 인터넷 TV 생중계와 당원 방청 등을 통해 후보자를 공개면접하는 공천시스템이다.

첫 면접 대상자는 광주 서구 을 김하중·천정배 후보였다. 이들 후보는 1번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공개면접 첫 순서를 시작했다.

김 후보는 “대학생들이 설 명절인데도, 구직 문제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학교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고 정치 인생을 걸기로 결정했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시민과 약속을 했는데, 호남정치복원과 정권교체 두 가지를 하면서 ‘호남정치 복원’을 통해 소외되고 낙후한 호남의 권리를 되찾겠다. 호남이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들 후보는 이날 자유발언에서 공천관리위원(7명)과 방청객들을 상대로 자기소개·출마동기·정치소신·의정활동계획 등을 설명했다.

1번 발언이 끝나자 공관위원과 패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광주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성장동력이 떨어지는데, 극복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후보는 “경제적으로 뒤쳐진 것은 맞지만 문화예술부문은 앞서 있다. 새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높여겠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천 후보는 “극소수 특권세력이 독식·

독점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세력들을 감싸고 있다.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보 한 명당 10분씩 20분의 시간이 지나자, 타임 종료벨이 울리면서 면접대상자들이 교체됐다.

동남 을 면접대상자인 김명진·김영집·서정성·장병완·정진욱 후보가 단상에 서자 지지자들 사이에선 지지 후보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연호가 터져나왔다.

이들 후보의 1번 자유발언이 끝나자 공관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DJ와 같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명진 후보는 “DJ의 정신을 이어받아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호남정치 복원을 위해 뉴DJ를 주장하는데, 당세 확장에 도움이 되리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김영집 후보는 “당이 희생정신으로 노력한다면 가능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서정성 후보는 본인의 정치관과 감정을 묻는 질문에 “정직과 헌신이 더해질 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40대로서의 젊음과 활력, 그리고 의사라는 전문성을 갖고 지역민들과 소통해온 것이 강점이다”고 밝혔다.

‘총선이 치러질수록 투표율이 낮아지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정진욱 후보는 “광주의 정치가 희망과 기대를 준 적 있는가. 투표율 낮은 것이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면접에선 광주 8개 선거구에서 후보 28명이 심사에 임했다.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연호하며 환호성을 보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노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 밝은광주안과

**태영21 병원**  
TAEYOUNG 21 HOSPITAL

# 당뇨병-갑상선 건강강좌

좌장 · 이문규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이사장)  
강사 · 김재현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총무이사)  
강호철 교수(화산전대병원)  
김순호 부장(광주기독병원)  
김상용 교수(조선대병원, 현 당뇨병학회 수석 부총무)  
양태영 원장(태영21병원, 현 당뇨병학회 일차진료 이사)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3:30~4:30  
장소 · 태영21병원 2층 세미나실  
문의 · 062)362-0075 (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21병원 제22회 정기 음악회  
3월 18일(금) PM 6:30

신세계백화점 | 태영21병원